“센 디자인 ‘리큐Z’, 강력한 세척력 어필”

〈애경 스마트 액체세제〉

애경산업 디자인센터 전지훈 과장

애경 스마트 액체세제 ‘리큐Z’의 엔진오일 용기 디자인이 화제다. 알파벳의 마지막 ‘Z’를 통해 세탁세제의 가장 기본인 ‘세척력 끝판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를 디자인에서부터 드러냈다는 게 회사 측 소개다. 사내 월간베스트 챌린지상에 빛나는 전지훈(35) 애경산업 디자인센터 CD1팀 과장을 만나 ‘강력한 세척력’과 ‘프리미엄 세제’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센’ 디자인을 제시한 혁신적 도전에 대해 들었다.

자동차 엔진오일 용기 역동적 디자인서 착안
프리미엄+세척력 끝판왕 강조 전략 통했죠
제품을 한 번 더 보게 만드는게 디자인의 힘



-기존 ‘리큐’ 제품과 디자인 차별성이 궁금하다.

“기존 ‘리큐’가 ‘겔’이라는 제품 제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와 색상을 사용했다면, ‘리큐Z’는 강력한 세척력 기능 콘셉트를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인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강한 세척력의 프리미엄 세탁세제라는 이미지를 낮은 채도의 색상과 대비되는 보색을 사용해 디자인으로 표현했고, 브랜드 고유의 BI 표기방식도 제품이미지에 맞도록 수정했다. 라벨 그래픽에도 홀로그램을 적용했고, 이를 통해 고급스러움을 살리면서도 눈길을 끌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했다.”

-‘센’ 디자인의 매력이 있다면.

“세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는 세척력이며, ‘리큐Z’는 이를 극대화한 강력한 세제임을 표현해야 했다.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느낌에서 엔진오일 제품처럼 남성성과 직선적이면서 직관적인 디자인을 떠올렸다. 이를 세탁세제 시장과 ‘리큐Z’에 맞는 이미지로 재해석해 기존 세탁세제와는 다른 형태의 디자인으로 차별화한 게 특징이다.”

-‘센’ 디자인 발상에 대한 동기가 있는지.

“제품 콘셉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디자인적으로 강렬함을 풀 수 있는 부분을 상상하며 엔진오일 용기를 떠올렸다. 공교롭게도 마케팅, 물류 담당자까지 ‘리큐Z’ 개발을 맡은 3명이 모두 남자라 기존 제품보다 강한 색에 직선적이고 날렵한 남성적 디자인이 탄생한 것 같다.(웃음)”

-어떤 점이 소비자에게 어필했을까.

“말 그대로 ‘기존 세제들보다 세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세보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가 분말세제 디자인이 강렬한 색상대비로 세보이는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리큐Z’는 우수한 세척력으로 만든 프리미엄 세제인 만큼 고급스러우면서 세보이는 두 가지를 어필한 것이 주효한 듯싶다.”

-생활용품 디자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소 지론이 있다면.

“좋은 디자인과 매출이 꼭 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능성과 콘셉트가 현저히 떨어진 제품인데 디자인만 좋아서는 장기적인 매출을 이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필요한 제품과 가격, 이에 맞는 기능이 갖춰진 상태에서 콘셉트를 잘 녹여낸 디자인이라면 매출증대에 가시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요즘은 생활용품도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구매 결정을 망설이는 순간 제품을 한번더 보게끔 만들어 주는 게 디자인의 힘이자 역할이다.”

-기존 애경 제품 중 디자인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몇 해 전부터 계속 연구해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세제 카테고리에 손잡이가 있는 대용량 용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면서도 가장 따분하고 재미없는 구조다. 바로 이 부분의 사용성을 개선하고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리큐’ 브랜드에 적용돼 시장에 선보이기를 희망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리큐Z’를 들고있는 전지훈 과장 사진제공 | 애경

남양유업, 전국 1% ‘옳은 유기농 우유’ 선봬

국내 6개뿐인 동물복지인증 목장 원유 사용



남양유업(대표 이원구)이 우리나라에 단 1%뿐인 동물복지인증 목장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우유인 ‘옳은 유기농 우유’를 출시했다.

동물복지인증이란 농장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한 농장과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까다로운 인증 및 관리 기준으로 5000개 이상의 전국 젖소 농가 중 인증을 받은 농장은 현재 단 6개에 불과하다.

남양유업의 ‘옳은 유기농 우유’는 동물복지인증의 인증 기준에 따라 송아지 때부터 면역 물질이 함유된 초유를 먹인 젖소와 배합사료가 아닌 건초와 풀 사료를 주식으로 먹인 젖소들의 원유가 사용됐다.

남양유업 이원구 대표이사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옳은 유기농 우유’의 출시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찾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제 유기농협회 인증(IFOAM)까지 획득한 ‘옳은 유기농 우유’는 PET 용기(180ml, 750ml)와 멸균팩(120ml, 180ml)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되며, PET 용기 750ml 기준 4650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지난해 ‘해외홈쇼핑 초청 수출상담회’ 모습. 사진제공 | CJ오쇼핑

CJ오쇼핑, 中企 해외 진출 상담

CJ오쇼핑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

30~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글로벌 유통망 소싱페어’에 참여해 중소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일대일 상담을 한다. 2004년부터 해외 사업을 펼치고 있는 CJ오쇼핑은 태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의 현지 상품기획자 11명, 중국과 멕시코의 현지 상품기획자 각 2명 등을 참석시킨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1000곳 이상의 국내 업체들이 참여해 CJ오쇼핑을 포함한 해외바이어 90여개 사와 함께 새로운 수출기회를 모색하게 된다.

정정욱 기자

인사

피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국장급 파견 △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 이창희 △사이버위협합동대응팀 이상학

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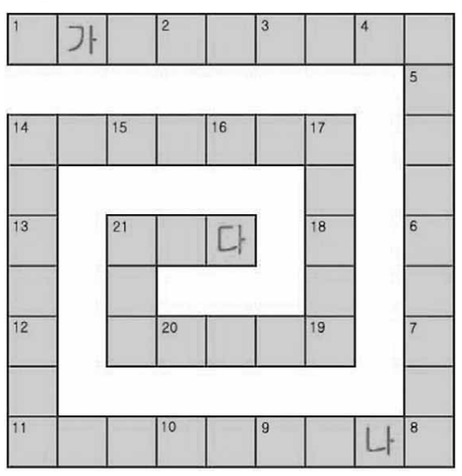
◇김기석씨 별세·영노 현경 경미(숭실대 교수)씨 부친상=27일, 강남 삼성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30일 오전 6시, 02-3410-6920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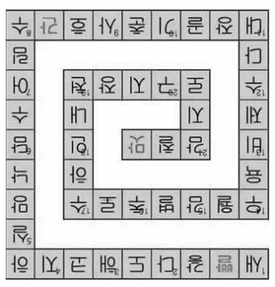


■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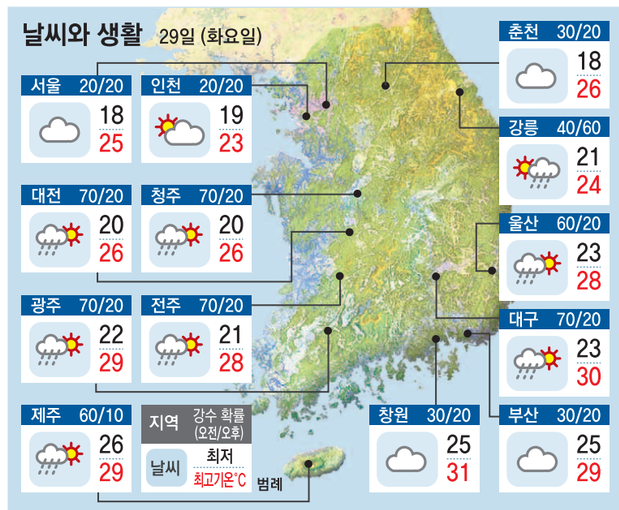
01.아주 짙게 빨갛고 새뜻하다. ‘새ㅇ갛ㅇ’
02.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에 있는 섬이 많은 남해안 지역. 03.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04.지면보다 낮은 곳에 만든 방.
05.희망을 잃고 맥이 풀림. ‘ㅇ망ㅇ담’
06.민물고기. 07.대강 짐작으로 잡은 수.
08.종합 병원 등에서, 병동 등 특정 단위에 속하는 간호사 중의 우두머리.
09.육체적 ·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
10.기골이 건장하고 큼. ‘ㅇ공ㅇ대’
11.대단히 많은 수. 12.밀가루를 반죽하여 맑은장국이나 미역국 따위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
13.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살이 찌도록 기르는 소.
14.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자처하는 느낌.
15.갓 태어나 암컷과 수컷으로 가려 놓은 병아리. ‘ㅇ별ㅇ’ 16.가을 이슬을 받은 물. ‘ㅇ로ㅇ’
17.운송품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운송품의 인도를 받는 사람.
18.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천도교의 기본 사상.
19.하늘과 땅은 영구히 변함이 없음. ‘ㅇ장지ㅇ’
20.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는 마음. ‘ㅇ로지ㅇ’
21.음식이 입에 당기는 맛.

■ 퍼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 나, 다** 칸의 글자를 차례로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제목이 됩니다.



날씨와 생활 29일 (화요일)



산 날씨

북한산	16/26
설악산	20/24
오대산	18/26
계룡산	19/26
속리산	20/26
소백산	20/27
팔공산	23/30
지리산	23/31
덕유산	20/29
내장산	20/28
한라산	18/25

바다 날씨

인천송도	19/23
제부도	18/25
경포대	21/24
속초	20/24
대천	20/25
안면도 꽃지	20/24
변산반도	21/28
거문도	25/30
칠포	24/28
해운대	25/29
제주도	25/29

미세 먼지

서울	31	보통
부산	32	보통
대구	34	보통
인천	43	보통
광주	36	보통
대전	34	보통
울산	38	보통
경기	40	보통
강원	31	보통
충북	42	보통
경남	36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30일(수) 서울경기 18/24 영동 19/24 충청 18/23 호남 19/27 영남 23/29 제주 23/29
31일(목) 서울경기 18/27 영동 19/25 충청 18/27 호남 20/28 영남 21/28 제주 23/28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29일(화요일) 음력: 7월 8일

쥐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한 가지 일에 매진하지 못하는 날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인생행로는 목적지를 향한 긴 여정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매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교묘한 술책으로 주변인을 움직여 큰 이익을 바라는 날이다. 그러나 내가 당하기도 한다.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킴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날이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길방:남**
뱀 행운색:노랑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오늘은 일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그저 게으름만 부리는 날이다. 그러나 마음속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다. **길방:중앙**
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은 흉한 날이며 어려웠던 사람은 좋은 날이다.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상대방과 의견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일이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우월한 위치에 등극하게 된다. 오늘의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어 내일은 보상받는 날이 되겠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오늘은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입는 날이다.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오늘은 검정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은 나에게 적개심을 품은 사람이다.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오늘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고독하며 반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지만 참고 견디면 놀랄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다. **길방:서**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4,6,9,(8,0)**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소, 뱀, 닭**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 편집인 이성춘 | 편집국장 연제호 | 광고국장 이승욱 | 인쇄 동아일보사

대표전화 02 2020 0114 | 편집부 02 2020 1032 | 스포츠1부 02 2020 1041 | 스포츠2부 02 2020 1059 |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 경제부 02 2020 1062 | 뉴미디어전략팀 02 2020 1027 | 사진부 02 2020 1069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